

# 北 核실험 파장

## “첨단 장비에도 방사능 탐지 안돼”

의문1, 핵실험 성공했다

외신들 “1kt 미만... 핵실험 단정 못한다”  
일부선 “실패 했으면 폭발 안 일어나”

한국·미국·일본 정부는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일단 평가를 유보하는 분위기다.

AFP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 “북한에서 감지된 지진파는 1kt 미만의 폭발로 인한 것으로 이것이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리히터 규모 4 미만의 진동 결과로 볼 때 핵실험보다 TNT 수백t의 (폭발)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했다. 과학기술부는 지진파 진도가 3.9라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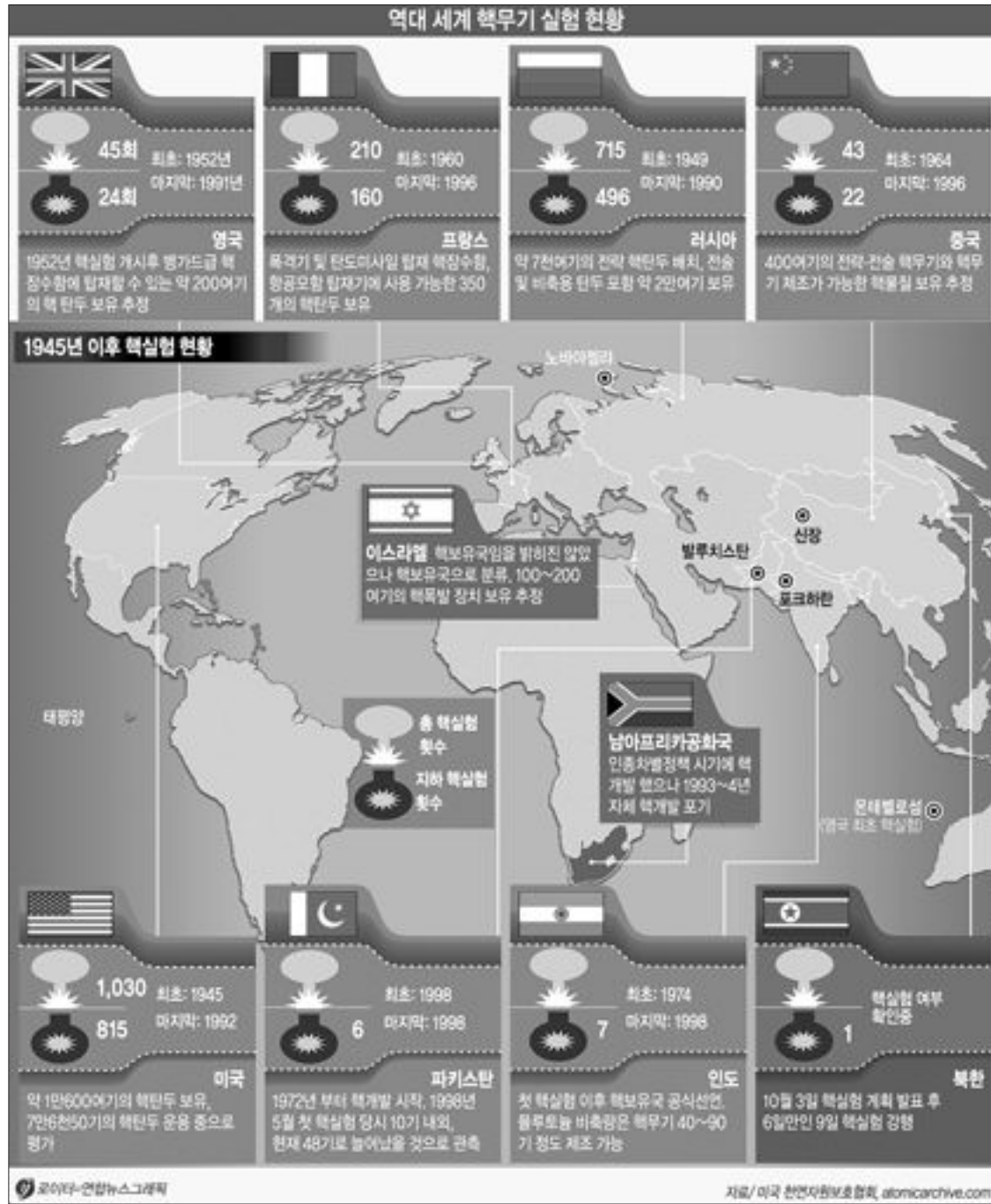
특히 핵실험을 했다면 반드시 대기 중에서 방사능이 탐지돼야 하는데, 현재 방사능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이 첨단 장

비를 동원해 추적 중이지만 아직 방사능 결과는 얻지 못한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핵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총론적으로는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실험이 실패했다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당국도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원자력총국 산하 남천화학연합기업소의 핵폐기물 처리회사 부사장을 지낸 김대호(47·1994년 입국)씨는 “북한 자체 기술에 의한 핵실험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총리, 포용정책 실패 자인

남북정상회담·대북특사 검토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연설회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뒤, 금강산 관광 등 대북경협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굉장히 유효했고 성과도 있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전반적 포기

라고는 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결의안의 수준이나 국내의 중지를 모아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수정)할지는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상황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새롭게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중국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북한으로부터는) 직접 연락을 못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문2, 과시용 아닌가

北, 핵물질 유도탄 장착 능력 부족

IAEA 한국 대표를 지낸 핵물리학 권위자 정근모(명지대총장)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실질적인 위협용이 아닌 과시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한 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탄두를 가볍게 만들어 폭발물을 목표 장소까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행체 설계 능력이 필

수적인데 북한은 핵 폭발 물질을 장거리로 보낸거나 유도탄에 실어 보내기 위한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며 “단지 자신들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 미국이나 일본 등과 협상할 때 유리한 입장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성공여부 최종판단 유보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만 하루가 지난 10일 핵실험의 성공 여부는 물론 그것이 과연 핵실험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낮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아직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민순 안보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의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은 약 2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종판단 유보는 전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의 정부 성명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물론 한국지질연구소와 미국 등이 포착한 지진파의 규모도 볼 때 핵실험 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와 지진파 크기에 근거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며,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 실장이 말한 대로 북

한이 핵실험을 했는지 또 했다면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왜 2주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 핵폭발 뒤 발생하는 일종의 가스인 방사능 핵종을 탐지해 분석해봐 핵실험 및 최종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진파만으로는 핵실험인지 여부를 100% 완벽하게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중에 떠돌아다니는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장치를 항공기나 전방대 등에 배치해 탐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 대북정보감시 ‘워치콘’ 현단계 유지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해온 한미 군당국이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참 관계자는 10일 “한미는 워치콘을 격상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를 격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현 워치콘 상황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워치콘은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군은 1999년 연평해전 이후부터 지속해 온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워치콘 3단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며 우리의 국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한 단계 격상된다.

워치콘을 격상하면 U-2 고공정찰기와 WC-135 정찰기 등 대북정보감시 자산의 운영 횟수를 늘려야하는 등 운영비가 소모된다.

합참북도 김주근 공계리에서 추가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첩보와 관련, 합참은 “특별히 긴장할만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특이 군사동향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안보리도 핵실험 성공 축하해야”

박길연 북대표부 대사

박길연 유엔 주재 북대표부 대사는 안보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슬로모운 결의나 의장성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핵실험 성공을 축하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사

는 이날 핵실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안보리도 북한 핵실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어 추가 핵실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선택

▶ 무담보, 무보증 합계분할 구입 가능 ◀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일부

1588-8717

##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